

대기록보다 팀 승리 중요하죠... 끝내주는 마무리 투수 될래요

KIA 정해영, 역대 최연소 5시즌 연속 10세이브

23세 8개월 20일... 고우석 넘어 새 역사
KBO 세이브 최연소 타이틀 독차지 예고

“대기록들이 눈앞에 있지만 기록을 의식하지 않고 팀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KIA 타이거즈 마무리 투수 정해영은 기록보다 책임을 먼저 떠올렸다.

정해영은 지난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올 시즌 10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다. 23세 8개월 20일, KBO리그 역대 최연소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를 달성했다. 종전 최연소 기록은 고우석(당시 LG 트윈스)의 25세 0개월 5일이었다.

4-1로 앞선 9회 초 선두타자 정훈을 삼진으로 돌려세운 정해영은 연속 안타로 1사 1,2루에 몰렸고 고승민에게 볼넷까지 내주며 2사 만루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빅터 레이에스에 땅볼 타구를 끌어냈고, 1루수 변우혁의 호수비가 나오면서 팀 승리를 지켜냈다.

정해영은 “5년 연속 10세이브라는 중요한 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투구 내용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다”면서 “위기의 순간에 선배들이 수비에서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런 뜻깊은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제일고 출신인 정해영은 2020년 KIA 1차 지명으로 입단했다. 2021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마무리 투수 역할을 맡은 정해영은 데뷔 첫해 34세이브를 시작으로 2022년 32세이브, 2023년 23세이브, 2024년 31세이브를 쌓아 올리며 KIA 뒷문을 지켜왔다. 지난 시즌에는 KBO 역대 최연소 100세이브 달성을 기록하는 등 KIA 선수로 26년 만에 구원왕에 등극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총 53경기에 출전해 3승 4패 31세이브 평균자책점 2.27을 기록했고, 이 활약을 인정받아 연봉도 2억 원에서 80% 인상된 3억6,000만 원으로 경중 뛰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한 비결은 ‘무조건 막아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정해영은 “1아웃 이후 주자들이 쌓였지만 무조건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했다. 카운트 싸움이 불리하게 흘러갔지만, 포수 한승택의 사인과 리드를 믿고 던졌다”며 “수비의 도움이 물론 필요하지만, 스스로 경기를 마무리지을 수 있는 투수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해영은 지난해 역대 최연소 100세이브 고지를 밟았고 13일은 역대 최연소 5년 연속 두자릿수 세이브라는 기록을 추가했다. 올해 6년 차인 정해영은 앞으로도 세이브 기록에 있어 최연소 타이틀을 독차지할 전망이다. 조혜원 기자

KIA 타이거즈 정해영이 지난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시즌 10세이브째를 수확, 23세 8개월 20일의 나이로 KBO리그 역대 최연소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를 달성했다. KIA 제공

광주일고 김성준, MLB 텍사스와 계약

“물모델 오타니...투타 겸업 성공할 것”

제2의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꿈꾸는 광주일고의 투수 겸 내야수 김성준(18)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에 입단한다.

김성준 측 관계자는 14일 “김성준이 텍사스와 계약하기로 합의했다”며 “김성준은 15일 미국으로 출국해 도장을 찍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계약금은 100만~130만달러(약 14억원~18억4,000만원) 사이로 알려졌다.

우투우타인 김성준은 오타니처럼 투타 겸업을 한다.

그는 지난해 고교야구에서 투수로 14경기에 등판해 3승 1패, 평균자책점 2.65를 올리고, 타자로 28경기에서 타율 0.307, 1홈런, 8타점, OPS(장타율+출루율) 0.831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3학년이 된 올해에도 투수로 8경기에 등판해 2승 1패, 평균자책점 3.24의 성적을 냈고, 타자로는 11경기 타율 0.333, 1홈런, 8타점, OPS 1.015를 마크했다.

김성준은 잠재력이 큰 선수다.

조윤재 광주일고 감독은 “김성준은 전문적인 투구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도 시속 150km대 빠른 공을 던진다”며 “미국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하고 체력과 체력을 키운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감독은 또한 “과거 고교야구에선 몇몇 선



김성준

수가 투타 겸업을 했지만, (김)성준이처럼 기록이 없는 선수는 없었다”며 “미국야구에서 투타 겸업을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준은 조윤재감독의 말처럼 어깨 힘이 좋고 타격과 수비, 주루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운동능력을 보인다. 최근 2년 동안 최고 구속을 시속 10km 가까이 끌어올릴 만큼 성장 속도도 빠르다.

김성준은 KBO리그 10개 구단 스카우트 팀의 선발 1순위로 꼽히기도 했다. 김성준은 당초 1라운드 지명이 확실시됐던 KBO리그 신인드래프트 참가를 고려했으나 최근 방향을 틀어 미국행을 결정했다. 투타 겸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찾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김성준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국행을 선택했다”며 “실패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지우고 꿈을 향해 달리겠다”고 말했다.

김성준의 롤모델은 오타니다.

그는 “오타니는 어린 시절부터 연령별 목표를 세우는 등 철저한 계획대로 성장했다”며 “나도 텍사스와 입단식을 마친 뒤 만다라트 계획표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U18 금호고가 최근 2025K리그 주니어 U18 C권역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FC 제공

금호고 K리그 주니어 U18·U17 동반 우승

전기리그 권역 1위 확정

광주FC U18 금호고가 K리그 주니어 U18과 U17 저학년 리그에서 나란히 우승을 차지, 구단 최초 ‘고-저학년 동반 우승’을 기록했다.

14일 광주FC에 따르면 금호고는 지난달 26일 울산HD U18 현대고와의 원정 경기에서 5-1 대승을 거두며 U18 리그 C권역 전반기 조기

우승(6승 1무 1패)을 확정지었다. 저학년 리그에서도 1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5승 1무 1패로 2위 전북현대 U18 영생고를 제치고 우승을 확정했다.

광주FC 관계자는 “이번 동반 우승은 구단 유소년 시스템의 저력을 입증한 결과”라며 “결출한 선수들을 다수 배출한 유스 명문답게 앞으로

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용 U18 금호고 감독은 “고교 축구 강호들이 즐비한 C권역에서 당당히 동반 우승을 거둔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에게 고맙다”며 “앞으로 대한축구협회장배에 이어 K리그 유스 챔피언십, 전국 고교 왕중왕전 등 중요한 대회들이 많은 만큼, 더 좋은 성적을 거둬 축구 명문 금호고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

조선대·광주여대 배구팀, 전국체전 광주 대표에 선발

조선대학교와 광주여자대학교 배구팀이 나란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광주 대표로 선발됐다.

14일 광주시체육회와 광주시배구협회에 따르면 조선대와 광주여대는 전남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광주 대표 선발전에서 각각 호남대학교를 세트스코어 3-0으로 제압하며 전국체전 출전권을 따냈다.

남자대학부에서는 조선대가 3-0(25-20, 25-13, 25-16)으로 호남대를 완파하며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을 보였다. 선수 전



조선대 배구부가 최근 호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 광주시 배구 대표 결정전에서 호남대학교를 세트스코어 3-0으로 완파했다. 조선대 배구부 제공

원이 고른 활약을 펼치며 상대의 추격을 틀어막았고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이끌어냈다.

이어 열린 여자대학부에서는 광주여대가 3-0(25-13, 25-15, 25-14)으로 호남대를 제압했다. 2023년 창단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광주여대는 이날 조직력과 탄탄한 수비, 공격의 유기적 호흡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특히 광주여대는 2024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 여자대학부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 예선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전국 정상급 전력을 입증했다. 조혜원 기자

광주시체육회 ‘스포츠버스 사업’ 공모 선정

광주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2025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 사업에 선정됐다.

14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는 도서, 벽지, 접적 지역의 학교와 전교생 100명 이하의 학교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스포츠 버스를 직접 찾아가 새로운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에서는 소규모 학교인 임곡초등학교와 지난해 시체

육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북구가족센터를 대상으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버스 체험, VR을 활용한 게임, 뉴스포츠 체험 및 작은 운동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고른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 스타와의 만남, 스포츠 재능기부, 푸드트럭 등을 연계해 참여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조혜원 기자